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including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레이디스코드

아이돌 스타 또다시 안전 적신호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로 멤버 은비 사망

가수들 바쁜 스케줄에 목숨 건 질주 잦아

결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은비(사진)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빠른 스케줄을 소화하는 아이돌 스타들의 안전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레이디스코드는 지난 2일 대구에서 KBS '열린 음악회' 녹화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 피로도도 높다. 매니저들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일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시간 만에 주파했다" 등의 무용담을 털어놓을 때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수들의 교통사고 소식은 지난 10년간만 돌아봐도 좋을 일이다. 그중 원티드는 데뷔한 해인 지난 2004년 교통사고로 멤버 서재호가 사망하면서 팀 활동을 원할히 이어가지 못했다.

2007년에는 그룹 슈퍼주니어의 일부 멤버가 스케줄을 마친 뒤 올림픽대로에서 자동차 전복 사고를 당해 그중 규현이 골반이 골절되고 기흉이 생기는 중상을 입었다. 걸그룹 시크릿은 2012년 올림픽대로에서의 빙판길 교통사고로 멤버 정하나가 갈비뼈에 금이 가고 폐에 멍이 들어 심각 활동을 중단했다.

아이돌 가수들이 하루에 스케줄 서너 개를 소화하는 건 다반사. 스타급이 아니라 신인일 경우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무리한 스케줄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 인기 걸그룹의 소속사 관계자는 "보통 서너 개의 스케줄이 기본"이라며 "여름 휴가철에는 지방에서 특집으로 열리는 음악 프로그램이 많아 유독 지방 일정도 많다. 신인의 경우에는 지방 일정이 더 많다. 늘 바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강원래·김송 부부 "부모 되니 하루하루가 소중"

KBS '엄마의 탄생'서 출산 장면 공개

어느 집 아기가 안 귀하겠느냐마는 아기는 유독 사람들을 몽글하게 만든다. 가수 강원래(45)·김송(42) 부부의 아들 선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강원래 부부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선을 낳았다. 혼인신고한 지 13년, 결혼식 올린 지 11년 만인 데다 고통스럽다는 시한부 아기 시술을 포기 않고 시행해 얻은 결실인 만큼 세상의 축복을 한몸에 받았다.



밝혔다. 엄마로 돌아온 김송은 행복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육아를 하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 선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된 다음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부모가 되니 저절로 책임감이 생겨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점이에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왜 온 라인을 아기 사진으로 도배하는지 공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선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네요. (웃음)" 부부 관계도 크게 달라졌다는 게 둘의 공통된 이야기다. 김송은 "정말 남편이 달라졌다"고 털어놓았다. 매주 일요일 오전 방송되던 '엄마의 탄생'은 가을 개편을 맞아 이날 18회부터 수요일 오후 7시30분에 방송된다.

'꽃보다 할배', 예능 최초 美 지상파에 포맷 수출

tvN 인기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가 미국에 상륙한다. tvN은 '꽃보다 할배'가 미국 메이저 지상파채널 NBC에 포맷을 수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이 미국 지상파 채널에 포맷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vN은 미국 배급사 스몰월드IFT를 통해 '꽃보다 할배'의 포맷을 NBC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미국판 '꽃보다 할배'의 제목은 '베터 레이트 덴 네버'(Better Late Than Never: 더 늦기 전엔)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할배'들과 젊은 집꾼이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담은 '꽃보다 할배'의 기본 구성을 그대로 따른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할리우드 스타들을 섭외 중이며, 영화 '버킷 리스트' '헤어 스프레이' '사카고' 등을 만든 미국 유



명 프로듀서 크레이그 제이단과 닐 매론 콤비가 제작에 참여한다. tvN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은 기존 아이디어 수출 등 제한적이었던 행태를 벗어나 신한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방송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꽃보다 할배'에 앞서 케이블 프로그램 중에서는 '슈퍼스타K' '더 지니어스' '슈퍼디바' '더 로맨트' 등이 해외에 포맷을 수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Table with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4일), 子, 丑, 寅, 卯, 辰, 巳. Rows contain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